악비(岳飛) 묘를 거닐며

비장한 역사는 유수처럼 흘러가고
호기충혼만 세상에 남겼구나

千古遺廟酸心處
只有丹心照後人

一九九七年九月十一日

於湯陰

천고의 옛 묘 마음 쓰린 곳
오로지 단심(丹心)만이 후세 사람 비추네

1997년 9월 11일
탕음에서

訪故裏

秋雨綿似淚
涕涕酸心肺
鄉裏無故人
家莊幾度廢
來去八百秋

웃음

나는 웃는다 중생이 깨달으니
나는 웃는다 대법이 전해지니
나는 웃는다 배가 출항하니
나는 웃는다 중생이 희망 있으니

1998년 11월 16일

笑

我笑 衆生覺悟
我笑 大法開傳
我笑 渡船起航
我笑 衆生有望

一九九八年十一月十六日

옛 고향을 찾아

가을비 줄줄 눈물인 듯
방울방울 서글프게 폐부를 적시네
마을엔 옛 사람 찾을 길 없고
장원은 몇 번이나 폐해졌던가
오고 감이 팔백 추(秋)로고

誰知吾又誰
低頭幾炷香
煙向故人飛
回身心願了
再來度衆歸

一九九七年九月十一日

於岳飛故裏

신생(新生)

정법을 전하니
만마가 가로막네
중생을 제도하니
관념이 바뀌고
부패된 물체 없애니
광명이 나타나네

1998년 9월 7일

新生

正法傳
萬魔攔
度衆生
觀念轉
敗物滅
光明顯

一九九八年九月七日

내가 또 뉘인지 누가 알리요
머리 숙여 향 몇 대 사르나니
연기는 옛사람 향해 날아가누나
돌아와 소원을 풀었나니
다시 와 중생 제도하여 돌아가노라

1997년 9월 11일
岳飛 고향에서

遊淸東陵

三百歲月似水流
舊殿荒冢滿目秋
誰知今日又來世
它日法正萬古留

一九九七年十月二十六日

於康熙陵

동화(同化)

경(經)은 마음을 닦고
공(功)은 몸을 연마하네
훗날 원만하여
眞善忍(쩐싼런)이 함께하리라

1992년 11월 18일
1998년 8월 수개

同化

經修其心
功煉其身
它日圓滿
眞善忍存

一九九二年十一月十八日

一九九八年八月修改

청나라 동릉(東陵)을 거닐며

삼백년 세월 물처럼 흘러
옛 궁전 황폐한 무덤 모두 스산하구나
오늘 또 세상에 옴을 그 뉘가 알리요
훗날에 법 바로잡아 만고에 남기리라

1997년 10월 26일
강희 능에서

善惡已明

衆生魔變災無窮
大法救度亂世中
正邪不分謗天法
十惡之徒等秋風

一九九七年十一月十五日

연소(延昭)는 말 달려 가고
풍운(風雲)은 흘러간 지 천 년
눈을 들어 관내를 바라보니
대법은 중원에 있구나

1998년 8월 10일
안문관에서

延昭揮馬去
風雲逝一千
擧目望關下
大法在中原

一九九八年八月十日

於雁門關

선악이명(善惡已明)

중생은 괴이하게 변하여 재난이 끝없는데
대법이 난세 중에서 구도를 하네
정사(正邪) 분별 않고 천법(天法)을 비방하나니
십악한 자를 기다리는 것은 추풍뿐일세

1997년 11월15일

遊日月潭

一潭明湖水
煙霞映幾輝
身在亂世中
難得獨自美

一九九七年十一月十七日

안문관(雁門關)을 거닐며

안문관(雁門關)에 들어서니
가슴 은근히 설레누나
천 년 옛길은 그대론데
관중(關中)에는 옛 모습 없어라

遊雁門關

踏上雁門關
隱隱胸內翻
千年古道在
關中無故煙

일월담(日月潭)을 거닐며

맑은 호수에
노을빛 아름답게 비껴드누나
몸은 난세 속에 있나니
홀로 아름답기 참으로 어렵도다

1997년 11월 17일

憶長安

秦川山水變
長安土下存
盛世天朝去
轉眼千百春
何處尋太宗
大法度唐人

一九九七年十一月二十二日

갱단에 난당이라 정당과 도적이 한 무리로다
스스로 백성을 혼란케 하니 역천반도(逆天叛道)로다
과학을 맹신하니 변이된 인류로다
폭력을 숭배하니 남을 이기려고 악착같이 경쟁하네
종교는 사악해져 돈벌이꾼이요 정치꾼이로다

1998년 7월 7일

黑幫亂黨 政匪一家
自主亂民 逆天叛道
迷信科學 變異人類
吹崇暴力 好勇鬥狠
宗教邪變 錢客政客

一九九八年七月七日

장안(長安)을 회상하며

진나라 산천은 변하였고
장안은 흙 속에 묻혔구나
성세왕조는 가버렸고
눈 깜박할 사이 수많은 봄이 지나갔구나
어디에서 태종을 찾으리요
대법은 당나라 사람을 제도하고 있도다

1997년 11월 22일

安心

緣已結
法在修
多看書
圓滿近

一九九八年一月二十七日

세계 십악(世界十惡)

사람이 착한 생각 없으니 사람마다 적이로다
전통을 파괴하니 문화는 퇴폐 되누나
동성이 난잡하니 마음이 어둡고 괴이하게 변했도다
도박을 즐기고 마약을 즐기니 제멋대로라
성이 개방되어 문란하니 사악한 데로 끌고 가누나

世界十惡

人無善念 人人爲敵
破壞傳統 文化頽廢
同性慾亂 心暗魔變
興賭興毒 隨心所欲
開放性亂 導向邪惡

안심(安心)

인연 이미 맺어
법을 수련하고 있나니
책을 많이 볼지니라
원만이 가깝도다

1998년 1월 27일

回首

悠悠萬古事
造就迷中人
誰言智慧大
情中舞乾坤

一九九八年二月十九日

회고

유유한 만고의 일
미혹 속의 사람을 길러왔도다
그 누가 지혜 크다고 말하는가
정(情) 속에서 건곤을 희롱할 뿐이네

1998년 2월 19일